

2016 새 설계

조 총 훈 순천시장

“청년 창업·미래형 일자리 육성... 시민이 잘사는 순천 만들 것”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중요합니다. 매년 강조해온 것이지만, 올해 역시 시민이 잘사는 순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조총훈 순천시장은 5일 “2015년은 국가정원 지정, 단일관광지 500만 관람객 방문 등 순천에 있어서는 정말 특별하고 행복한 한 해 였다”면서 “2016년은 시민이 행복한 더 큰 순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허리띠와 구두끈을 잘린 동여매겠다”며 새해 의지를 다졌다.

조 시장은 올해 청년 창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머무는 관광, 지역 농산물 유통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우선 청년 창업 100개소를 육성하고 창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 공간 10개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순천형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확산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20개 사회적 기업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 시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미래형 복합

정원산업 유통 중심지로 키우고

머무는 관광 정착 행정력 집중

로컬푸드 직매장도 본격 추진

산업단지를 조성해 MICE 산업 및 R&D 산업을 유지하고 서면 산업 재생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그는 또 정원의 도시 순천답게 순천만을 중심으로 정원산업 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정원산업의 중심이 될 정원지원센터를 차질없이 건립해 정원관련 기술개발, 창의산업, 경영컨설팅, 정원관련 전시와 판매 등 정원산업 유통의 중심지로 키워내겠다”면서 “탐사르 협약에 등록된 순천만 연안 일원의 갯벌 복원과 동천 하구 습지 탐사르 등록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의 특성상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직한 농부와 착한 소비자를 잇는 로컬푸드 활성화로 농촌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도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

하겠다”면서 “시민 주주 공모를 통한 순천형 로컬 푸드를 출범시키고 직매장 1호와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등 로컬푸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시장은 경제활성화와 함께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순천형 복지 정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시장은 “복지와 보건의 통합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시설도 확충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세대별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노인과 국가 유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전동에 노인회관을 신설하고, 가곡동에는 보건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향 2지구에 2929㎡ 규모로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과 직업 재활을 위한 순천 미래센터와 청소년 종합복지 기능을 수행할 청소년 문화의 집, 신대지구와 오천지구에 국공립 어린이집 등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는 문화정책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게 조 시장의 생각이다.

조 시장은 “축제와 예술단체 지원, 지역의 문화

2016년 주요 역점 사업은

- ▲청년창업·미래형 인재창출 집중 지원
- ▲순천형 로컬푸드 출범 등 지역농산물 유통사업 추진
- ▲국가정원 1호 순천만, 전국 정원산업 유통중심지 육성
- ▲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초·중·고교 전면 실시
- ▲문화예술재단 설립·문화시설 확대

정책을 추진할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참여형 예술 공연을 확대하겠다”면서 “문화의 거리도 도시재생과 연계해 예술 창작 공간 및 문화시설을 16개소로 확대해 청년 예술가 등이 몰려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 밖에도 올해 처음으로 동 지역 12개 고등학교에 100%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102개 유치원·초·중·고 4만 3000여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 3년간 도심 흉물 방지 덕암동 의료시설 정비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선정

수년동안 순천 도심에 흉물로 방치된 덕암동 건축물(의료시설)이 정비된다.

순천시는 5일 “공사가 중단된 채로 장기간 방치된 덕암동 건축물이 ‘건축물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 선도시업’에 선정돼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 건물은 순천시 덕암동 소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의료시설(병원)로

지난 2011년 4월 허가를 받고 2012년 11월 착공해 지하 터파기 공사 중(공정 5%) 중단돼 3년 넘게 방치된 상태다. 덕암동 의료시설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마트에 인접한 탓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이번 선도시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통과된 전국 방치건축물 17곳을 대상으로 사업유형성과 주변정비 및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에 대한 외부 심사단의 평가로 총 4곳이 선정됐

으며, 전남에선 순천시가 유일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시민들의 대책 문의가 많았다”면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현장을 관리해왔는데 정비 대상으로 선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선도시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사업자로 나서 해당 방치 건축물을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협의보상 및 수용 방식으로 취득한 뒤 완공 또는 철거, 재건축, 건축주 사업재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우국지사 석전 황원을 만나다’...순천대박물관 도록 발간

순천대학교박물관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11번째 도록인 ‘우국지사 석전 황원을 만나다’를 발간했다.

이번 도록은 매천 황현(梅泉 黃玿·1855~1910)의 동생으로 잘 알려진 석전 황원(石田 黃璣·1870~1944) 관련 유물을 모은 것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지원사업’으로 발간한 것이다.

‘매천야록(梅泉野錄)’ 등을 저술한 조선 후기 우국지사이자 시인·역사가였던 황원은 1910년 경술국치를 맞아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자결했으며, 동생 황원도 창씨

개명과 신사참배 등을 강요하는 일제에 맞서다 1944년에 절명시 2수를 남기고 자결했다.

형인 매천의 작품과 이름은 세간에 잘 알려진 반면 동생인 석전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은 석전 황원이 학계 주목을 받고 있다.

도록에는 외부에 첫 공개되는 ‘평등론(平等論)’과 ‘부호고(癡壺稿)’ 등 황원의 현실인식과 경제관을 살펴볼 수 있는 저술과 시문을 비롯한 구례 인근 지역 인물의 글과 다양한 일화 등을 담아내는 등 황원의 삶과 인간됨을 생생히 알 수 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또 형의 유고집인 ‘매천집’을 간행하는 과정에 주고받은 서간을 통해 당시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던 선인들의 굳은 의지도 살펴볼 수 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시 하수관로정비사업 기공식 겸 시무식이 열린 지난 4일 참석자들이 공사시작을 알리는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순천시, 기공식 현장서 시무식 갖고 새 출발

순천시가 붉은 원숭이해 첫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민원현장에서 열어 눈길을 끌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공식장과 창작 예술촌 기공식 현장에서 릴레이 시무식을 열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공식 겸 시무식

에서는 사업경과보고와 시민 대표의 감사인사 등이, 창작 예술촌 착공식 겸 시무식에서는 건축물 건립 구성안 설명과 순천 근대도시 및 도시재생 1년의 발자취 사진전 등을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순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원도심 일

원에 민간자본과 기술력을 도입한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으로 빗물과 하수를 분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수질 개선을 통해 순천만을 중심으로 청정지역으로 거듭나는 대공사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는 창작 예술촌 사업은 도심 유휴 공간을 문화예술 콘텐츠로 만들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문화적 활동을 재생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2016 광주일보 스키캠프

2016년 1월 27일(수) ~ 28일(목) 무주리조트

모집대상 : 초·중·고등학생
 참가비용 : 195,000원
 제공사항 : 숙박(가족호텔 1박), 3식 제공, 스키렌탈, 스키강습 2회, 리프트이용권(후야권, 오전권), 스키장 보험 및 여행자 보험, 왕복차량
 ※ 일반부 : 별도 문의

1월 27일(수)	1월 28일(목)
08:00~08:20	06:30~
08:20~11:30	07:30~08:30
11:30~12:00	08:30~12:30
12:00~13:00	12:30~13:00
13:00~17:30	13:00~16:30
17:30~19:00	16:30~
19:00~21:00	
22:00~	

※ 스키복, 보드 렌탈시 본인부담

주최 |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주관 | 투어넷 여행사
 문의 | 062-225-2544, 062-220-0555